

# 서울 지하철 시설중 화장실이 가장 불편하다

글 | 협회사무국

## 서울 수도권 전철역사내 화장실 점검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시민의 발로 자부해온 지하철이 심각한 이미지타격과 함께 이어지는 지하철관련 사건 사고 등으로 안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서울역 ~ 청량리간 개통을 시작으로 1985년 4호선의 개통으로 115개역 총연장 135km 지하철1기 시대를 열었고 이후 1995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8개역 총연장 152km의 지하철2기를 완공하면서 바야흐로 서울은 총 연장길이 대비 세계 5위의 지하철 도시가 되었다. 1호선 및 국철구간은 시설노후화로, 2호선은 일일 150만이 이용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최대 이용노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요사이 크고 작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지하철이 시민의 발이라고 자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안전성, 편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확성은 안전성이 기초가 되어야하고 안전성은 차량, 철로, 전기, 설비 등 각종시설, 승차장의 구조, 대피로 등 설계 건축 시에 고려되어야 할 근원적인 요인들과 이후 안전점검과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적합하게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두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만만치 않은 지하철 사정이 이번의 사고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한다.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어져있다. 수많은 계단, 좁은 이동공간, 긴 환승 거리, 대기질 문제와 함께 화장실 공간의 위생과 시설의 개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 지하철 화장실 실태조사실시-전반적으로 청결향상 이루어져

지난 연말 협회의 회원사인 크린코리아가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철구간내 화장실 36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다. 그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진행된 화장실문화개선운동에 발맞추어 환경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화장실에 대한 관리체계, 시민들의 의식향상 그리고 관리자의 지속적인 청소 등이 이루어져 청결 면에서 대단히 향상되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설이 오래된 국철 구간의 몇몇 역은 시설의 열악성과 함께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불결한 곳도 간혹 볼 수 있었다.

## 변기, 세면대, 환기구 주변 세심한 관리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의 청소상태 등이 양호하여 전반적인 화장실의 청결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요석과 찌든 때가 끼어 있으며 특히 대변기와 소변기 아래부분의 백시멘트에는 검고 누른 때가 끼어 있어 비위생적이고 불결하여 악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 세면대주위의 실리콘 처리면이 곰팡이가 피어있고, 환기구에는 먼지로 가득 차 있어 세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또 악취를 막기 위해 방향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기존 악취와 뒤섞여 두통과 함께 거부감을 주는 곳도 있었다. 또 청소도구함이 대체로 구비되어 있었으나 도구함 내부에는 청소도구가 어지럽게 방치되어 청결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 표1)서울 수도권 전철 역사 내 화장실 대,소변기 및 세면대 수량 총괄 현황

구 분	역 수	변 기 수			소변기	세면대	비 고
		동양식변기	서양식변기	소계			
서울지하철공사	115	729	370	1,099	664	536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47	601	934	1,535	973	743	5~8호선
국철	104	703	358	1,061	632	458	경원 경인 경부 분당 과천 안산선 (호선도심구간, 3호선지축~대화)
합계	366	2,033	1,662	3,695	2,269	1,737	

### 표2)서울 수도권 전철역사내 화장실 실태 점검결과

구 분	항 목	소 사 결 과			비 고
		양 호	보 통	불 량	
대 변 기	요석 및 오염 여부	188 (51.4%)	131 (35.8%)	47 (12.8%)	
	금구류의 녹 발생, 부식 여부	195 (53.3%)	130 (35.5%)	41 (11.2%)	
	바닥부의 백시멘트 오염 여부	32 (8.7%)	59 (16.1%)	275 (75.2%)	
소 변 기	요석 및 오염 여부	228 (62.3%)	100 (27.3%)	38 (10.4%)	
	금구류의 녹 발생, 부식 여부	191 (52.2%)	133 (36.3%)	42 (11.5%)	
	바닥부의 백시멘트 오염 여부	32 (8.7%)	47 (12.8%)	287 (78.5%)	
세 면 기	도기 및 금구류 오염 상태 여부	176 (48.1%)	136 (37.2%)	54 (14.7%)	
	실리콘 부위의 곰팡이 발생여부	39 (10.7%)	74 (20.2%)	253 (69.1%)	
실 내	타일의 오염 및 파손 여부	222 (60.7%)	106 (28.9%)	38 (10.4%)	
	천장바닥재의 오염 여부	279 (76.2%)	58 (15.8%)	29 (8.0%)	
조명환기	전구, 조명의 고장 및 파손여부	344 (94.0%)	19 (5.2%)	3 (0.8%)	
	환풍기의 파손 여부	344 (94.0%)	19 (5.2%)	3 (0.8%)	
	환기구의 오염 여부	58 (15.8%)	65 (17.8%)	243 (66.4%)	
청소도구함	도구함의 설치 여부	유 308 (84.2%)	무 58 (15.8%)		
	선반 및 고리의 부착 여부	유 91 (24.9%)	무 275 (75.1%)		
악 취	청소도구의 정리 정돈 여부	75 (20.5%)	113 (36.3%)	178 (43.2%)	
	악취 발생 여부	311 (85.0%)	34 (9.3%)	21 (5.7%)	계절적·동절기오염·방향제의 강한향에 의해악취를 못느낀



### 여자화장실 변기 수 절대부족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안)제정과정에서 논의가 활발했던 남녀화장실의 비율에서는 평균 1 : 0.54로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설기준을 규정해놓은 오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35조에는 남녀 대변기 부스를 남자용 3개 여자용 8개 이상으로 그리고 소변기를 5인용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태였으며 화장실 법에 명시해놓은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의 합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조항에도 역시 못미치는 실정이다.

표3)지하철구간별 남녀화장실변기수

구 분	남 대변기	남 소변기	소 계	여 변기	남여변기비율
국철구간	484	632	1116	577	1:0.52
서울지하철 구간	503	664	1167	596	1:0.51
서울도시철도구간	629	973	1602	906	1:0.57
합 계	1616	2,269	3,885	2,079	1:0.54

특히 가장 최근에 개통한 7호선, 8호선 구간의 화장실변기수의 비율은 각각 1:0.63, 1:0.46으로 시설 면에서는 대단히 우수한 화장실이지만 성 차별적 공간 개념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많은 여성들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증대와 화장실이용시간이 2배 이상 된다는 점을 들어 여성화장실을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법적인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안고 있다할 것이다. 차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건축과정에 이러한 평등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신설노선이 서양식변기 많아

공중화장실의 경우 동양식변기가 적합하나 서양식변기가 적합하나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물론 각각의 변기형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동양식변기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동안 이용되어 왔던 쪼그려 앉는 형태를 말하는 데 다른 사람과 간접 피부접촉면을 갖지 않는다는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오물이 불쾌하게 변기에 남아있는 경우나 자세에서 불편하여 편안한 배설이 되지 못하다는 단점과 함께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변기와 달라 이용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서양식 변기의 경우는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잔여 오물이 없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이 앉은 자리를 앉는다는 불쾌감과 특히 남성의 경우 소변이 닿을 수 있는 비 위생의 측면이 단점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휴지를 깔고 앉는다거나 심한 경우 하이힐을 신은 채로 변기 시트에 올라가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본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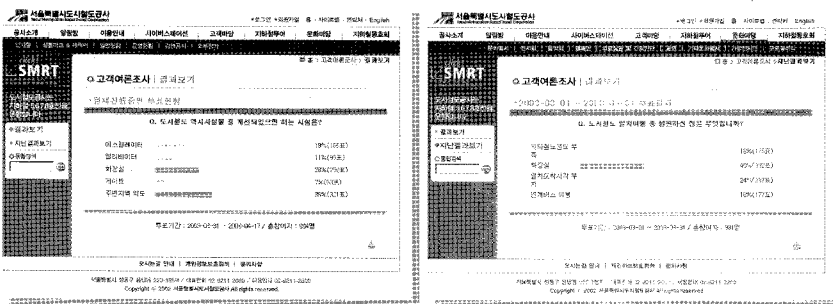
지하철의 경우 동양식과 서양식의 비율은 평균 55:45로 조사되었으나 국철, 지하철구간은 동양식이 2배 가량 많고 서울도시철도구간은 서양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4) 구간별 변기형태비율

구분	동양식변기	서양식변기	비율
국철구간	703	358	66:34
서울지하철구간	729	370	66:34
서울도시철도구간	601	934	39:61
합계	2,033	1,662	55:45

지난 2000년 협회에서 일본 화장실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한일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는 41 : 59의 비율로 서양식변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2002년 8월 네티즌 조사에 따르면 45 : 53의 비율로 서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중화장실을 건축 개 보수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 변기 부스 앞에 동양식인지 서양식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으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찾아 부스 문을 열고 닫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서울지하철화장실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개선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문제 남녀화장실비율의 문제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비단 서울 지하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2003.3.1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시철도 열차여행 중 불편사항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총 참여자 981명중 40%에 달하는 392명이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응답을 하여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이어 4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을 묻는 질문에서도 주변지역약도(36%)에 이어 화장실이 28%로 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2003. 4. 17. 기준)

화장실이 단순히 용변을 보는 곳이라는 인식은 이제 많이 벗어났다.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고객 서비스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앞장서는 지하철 화장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